

 국토교통부		보도해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6. 4(목) 총 1매	
담당 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•과장 오원만, 팀장 이창훈, 사무관 권오준 •☎ (044) 201-4137, 4377, 4171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각도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.

< 보도내용('20.6.4. 국제신문) >

- ◆ ‘가덕도 신공항’ 가능성도 타진...국토부 미묘한 기류 변화 감지
 -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.

□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각도를 변화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.

- 현재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진행중으로, 국토부는 향후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권오준 사무관(☎ 044-201-41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